

女性英雄小說의 敘事 方式과 小說 教育的 資質

鄭 炳 憲*

차 례

- | | |
|-----------------|-----------------|
| 1. 問題의 提起 | (2) 擇夫譚의 女性性 表出 |
| 2. 女性性 發顯의 源泉 | 3. 男裝의 小說史의 位相 |
| (1) 異人의 現實參與 樣相 | 4. 小說教育的 資質 |

1. 問題의 提起

여성영웅소설은 조선 후기의 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어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인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 성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류의 소설은 문학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학이란 역사나 교훈과 달리 현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형상화에 기대어 현실을 꿈꾸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실제의 모습과는 달리 여성의 꿈을 형상화한 것은 일차적으로 문학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들은 기존의 英雄小說의 形象化 方式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류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졌다.¹⁾ 그것은 새로움의 모색이라고 할 수 없어 기존의 문학사에서 항상 영웅소설의 범주 속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형상화의 틀은 그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로서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여도 과연 형식은 문학사적 의미를 규정할 만큼 막강한 위력을 가지는 것일까? 형식만을 강조할 때,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작품들을 창작했던 본질적 의미는 규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유형의 소설은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이름으로 고정되어 가고 있다.²⁾ 그렇게 명명되면서 영웅소설에의 귀속은 더 분명해진 것 같다. 이러한 사고의 높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正體性이 무엇인가 기존의 영웅소설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소설사적 의미를 획득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기존의 논의에서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이것이 이 논의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과제이다³⁾.

- 1)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는 전문교수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계 영웅소설의 연구」(『어문연구』 10, 어문연구회, 1985),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어문연구』 17, 어문연구회, 1988).
- 2) 영웅의 ‘雄’이 본래 수컷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성영웅이라는 말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언어는 확장된 개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성영웅이란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웅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그 문제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명칭은 ‘여걸소설’(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1973), ‘여효계소설’(정명기, 「여효계소설의 형성 과정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0), ‘여성영웅소설’(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범모」,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0), ‘여장군 등장 of 고소설’(여세주, 「여장군 등장 of 고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여장군형소설’(손연자, 「조선조 여장군형소설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여성계 영웅소설’(전용문, 「여성계영웅소설의 형성동인」, 『목원어문학』 4, 1983) 등으로 바뀌어 왔다.
- 3) 마치 문학이란 일반적 명칭에 ‘여류’라는 말을 붙여 이에 소속되는 작가나 작품을 괜히 따놓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처럼, ‘여성’의 관형어는 어찌 보면 그 작품들을 허망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영웅소설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단순히 형식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영웅소설의 아류라는 위치에 머물러 있는 여성영웅소설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는 여성영웅소설의 영웅소설적 외피가 여성성의 발현을 위한 봉투일 것이라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동의한다면, 봉투를 개봉하고 그 본연의 의미를 파악하는

여성영웅소설을 영웅소설과 관련지어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형성의 기반은 항상 영웅의 일생과 관련되는 신화적 성격의 서사라는 점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이 추구하는 바와는 다른 이유가 있어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 기반을 영웅소설과 관련짓는 태도는 또다시 일련의 여성영웅소설이 지향하는 목표의 추적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영웅소설이 기반하는 전 단계의 서사 형태는 반드시 영웅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영웅의 일생과는 다른 서사 형태의 탐색이 본고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이다.

여성영웅소설은 조선적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꿈의 형상화이다. 그런 점에서는 소설의 본질인 허구의 성격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이 유형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허구란 무엇인가, 그리고 허구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아가 허구의 작품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여성영웅소설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학 교육적 차원에서 문학의 본질에 대한 성찰로 논의를 심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최종적 의도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상으로 삼는 여성영웅소설은 단순히 우리가 연구하고 달려가는 '옛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살아 있는 '당대의 것'으로 우리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실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여성성에 대한 문화 기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인류 문화의 역사와 관련지어 채택된 논의를 그 전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학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역사의 자료가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문학이 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일대 일로서의 것이 아니라, 물질과 변형을 거친 결과라는 개론적인 논의가 최근의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학 이외의 것에 대한 넘나듦과 용인은 문학의 영역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 이외의 영역에 문학을 예속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의 연구에서 지나친 실증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문학을 문학으로 보아야 하는 당위성을 파괴

것은 편지 읽는 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상론한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논의를 함에 있어 실증적 자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히려 역사와 같이 문학 아닌 자료마저도 문학으로 끌어들이며 문학적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모든 기록 자료란 선택과 변용의 원리에 의하여 정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2. 女性性 發顯의 源泉

(1) 異人의 現實參與 樣相

발생사적으로 볼 때 여성영웅소설은 분명 영웅소설의 관습 위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소설의 규범은 이미 설화적 차원에서 정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대체로 영웅의 일생을 근간으로 한 公人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私的인 일을 수행하는 個人과 영웅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개인과 차별되는 영웅은 개인의 인생 궤적과 어떻게 다른가 - 대체로 이러한 점이 영웅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탐색된 것이었다. 그 결과 개인과 구별되는 영웅은 그 출발부터 평범한 인물과는 구별되는 존재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공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이미 출발부터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과정 또한 끊임없이 개인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삶을 꾸려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영웅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각 개인이 생각하는 理想的 삶의 總和와 같은 모습을 띠었던 것이다.⁴⁾

그런데 公的인 일과 私的인 일의 구분은 대체로 家庭과 연관되어 설명된다. 즉 家庭內的인 것을 사적인 것이라 하고, 그 틀을 벗어나 밖의 존재들과 영위하는 사회적 삶을 공적인 영역이라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내의 문제는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남성이 담당하도록 그 역할이 구분되었던 것이 동서양을 막론한 전통 사회의 모습이였다. 특히 조선의 경우 여성은 가정내의 일에 전념하고 그 외의 사회적 일에는 전혀 간섭할 수 없도

4)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동아문화』 10,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틀을 제시한 대표적 업적이다.

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성취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가정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는 일였고, 그것은 자신의 번식과 양육으로만 가능하였다. 그들은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고, 그들의 성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근거와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직계가 가문의 법통을 이을 때, 그들의 삶의 의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제도화되었던 것이다.⁵⁾

가정은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일에 종사하는 남성의 편안한 휴식처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는 예비적인 지도자로서의 남성을 훈련하는 기관과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항상 본 궤도에서의 일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일을 예비하는 준비기간과 그 장소로서의 의의만을 가지는 것이, 여성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가정이었다. 따라서 전통시대의 관점에서 여성의 우월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업무의 장소인 가정내의 일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였는가의 여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과된 과업의 수행으로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조의 이상적인 여성이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성은 이에 합당한 賢母良妻型 인물이 되도록 양육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가정을 벗어나는 사회적 영역의 일은 본래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성과 영웅이 서로 양립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영웅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가정에서의 탈출을 요구한다.⁶⁾ 그런데, 여성의 중요한 활동 영역은 가정이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기대와 영웅에게 요구되는 기대는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배타적인 것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개념이 여성영웅 속에는 混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하는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대체로 자신의 영웅성을 확인시키고, 다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5) 가문의 유지는 오히려 여성의 모권 강조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모권과 가부장권의 갈등이 드러날 경우, 이는 곧바로 血統 중심이나 아니면 宗統 중심이냐로 탈바꿈하게 된다. 가문소설은 바로 이러한 갈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母의 성격과 의미」,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집문당, 1998), 278-281면.

6)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대출판부, 1985), 1면.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대단히 슬기로운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여성에게 요구하는 가정적 역할과 영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도 비판받지 않는다. 비판받지 않도록 자신에게 여성성 표출과 함께 부과된 일상적 업무도 성실히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해결책은 자세히 보면 대단히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른바 '뛰어난 여성이 되고자 하는 욕구(Superwoman Complex)'에 부응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성은 영원히 영웅이 될 수 없다는 남성의 專橫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여성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만 남성과 대등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남성이 수행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 따라서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그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가 여성의 영웅성을 주목하면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여성의 한계성에 도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는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이 취하는 영웅적 행위가 여성의 욕구를 분출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사실을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영웅소설은 호기심이나 기이함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기존의 제도나 의식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영웅적 활동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춘향이 기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양반의 이념인 절개를 통하여 변학도에게 대항하듯이, 그리고 홍길동이 자신의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충성을 내세워 기존의 제도와 대결하듯이 여성영웅들은 여성과는 전혀 무관한 듯이 보이는 영웅적 관습을 빌려서 남성과 대결하였던 것이다.⁷⁾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가정 안으로만 국한시키는 기존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즉 여성의 능력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나아가 여성의 활동 또한 남성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확대를 남성과의 대결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은 이러한 여성성의 표출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 남성으로서도 도달하기 어려운

7) 정병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변이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36(한국언어학회, 1996), 396면.

영웅의 형상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성을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유형의 소설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男裝의 이유는 바로 사회의 여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여성의 본원적 능력이나 잠재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남성의 전유물, 또는 남성의 理想으로 정착한 영웅적 장치를 끌어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 논리인 남성성과 함께 그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성을 대립 항목으로 설정하는 문학적 관습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그것은 항상 현실과 대응하는 숨어있는 것의 표출과 관련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적 관습으로 우리는 異人說話의 전개 양상을 주목할 수 있다.⁹⁾ 異人은 현실에 드러난 존재가 아니다. 현실 속에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는 이미 이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인은 凡人과 별로 구별되지 않으면서 내면적으로는 초월적 세계와 연관을 맺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초월적 세계와 연관을 맺으면서 세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영웅과는 또 구별되는 존재이다. 그 비속성으로만 본다면 이인은 영웅보다는 범인에 가까운 존재인 것이다.¹⁰⁾ 그는 항상 결과로서만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이인임이 드러난다면, 그는 이미 이인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왜 결과로서만 존재하는 이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이인의 행적 자체가 일반인의 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적을 꿈꾸면서 향유자들은 현실의 간난과 고통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현실의 권위를 조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인설화에 드러난 의미 층위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질 수 있다.

- ① 기술과 신이한 경지
- ② 수시변통의 능력

8)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그 후대적 변모」, 『국문학연구』 78(서울대학교학원 국문학연구회, 1986) 96면
 9) 이인의 유형과 문학적 수용 양상에 관하여는 조동일, 「구전설화에 나타난 이인의 면모」(『한국설화의 민중의식』, 정음사, 1985)와 윤주필, 「조선전기 방외인문학에 관한 당대인의 인식연구」(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에서 밝혀졌다.
 10) 윤주필, 「이인설화의 의미 층위와 문제점」, 『설화문학연구·하』(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385-388면.

- ③ 운명예의 순응
 ④ 근원에 대한 종합과 투시¹¹⁾

위의 층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인은 사회적 기능이나 물질의 생산활동과 관련되기보다는 인간의 근원적 가치에 관여하는 인물형이다. 이 바탕 위에서 현실에 대한 교섭이 나타나기 때문에 향유층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과 인물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현실이 이인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인은 현실 저편에 숨어서 그들의 가치를 추구하되, 현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현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될 때, 이인은 자신을 현실 속에 드러낸다. 초월적이거나 신적 영역의 존재들이 인간에게 인간의 영역을 넘겨주고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갔지만, 항상 인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이인설화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인이 현실에 참여하는 양상은 한 존재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현실세계에 전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들이 현실에 등장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현실의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영역을 어디서고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인이란 숨어서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숨어서만 가치를 추구하도록 요구받는 존재이다. 인간의 자유로움을 위하여 신을 신의 영역에 머무르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현실적 인간들의 자유로움을 위하여 이인은 또 그들의 영역에 머물기를 요구받는 것이다.

이인 그 자체에만 관점을 국한시킬 때, 이인이 현실에 드러나고 간여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그들의 불만에서 연유한다. 불만이 없다면 그들은 현실에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 논리와 초월적 논리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대립항으로 존재한다. 즉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능력을 지니거나 서로 다른 영역에서 等價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현실을 지탱하는 兩大 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남성사회가 지속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변질되고, 여성에게는 이

11) 윤주필, 위의 논문, 398-402면.

에 길들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적인 것은 현실의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 외적인 곳에만 자리잡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여성성이 현실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여성성은 이인의 현실 관여와 관련되는 것이다.

(2) 擇夫譚의 女性性 表出

여성성이 현실의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는 양상은 이미 이인의 표출 양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관습을 반복하고 있다. 남성적 이념이 지배하는 현실의 세계에서 여성성의 강력한 분출은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남성적 세계를 축출하고 여성성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성은 항상 남성적 세계와의 평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만 표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결말을 위하여 소설적 과정이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여성영웅소설의 진정한 존재 이유가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존재 이유와 당위를 설명해 주는 前小說의 形態를 우리는 여성성이 본원적이고 근원적인 능력으로 존재하면서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의 남편 고르는 이야기[擇夫譚]'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설화는 영웅소설에서는 간과되었던 한 남성의 영웅적 행위가 결코 그 남성 단독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성성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택부담에서 여성은 결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남녀의 만남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주도가 일반적인 것이 우리 서사문학의 중요한 한 특성인 것이다.¹²⁾ 또 설혹 그 부모가 여성의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12) 남성의 주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 여성의 약탈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예정의 실현이라는 소설의 목표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수동적 존재이다. 두 남녀의 결연은 죽기를 각오한 최량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성의 결연한 의지는 우리 고소설 일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확인되고, 결국 여성 자신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만남에 관한 한 여성의 주도적 위치는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¹³⁾

남편을 선택하는 목적은 자신의 성취를 위한 경우와 배우자인 남성의 성취를 보조하기 위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자신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성을 선택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시대의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성의 역할이 가정 내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자아 성취는 대단히 협소한 의미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자아 성취가 의미하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여성 택부담의 본질 규명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성취를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남성의 성취와 함께 자신의 성취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다만 남성의 성취를 보조하기 위한 선택의 경우는 여성의 헌신과 남성의 입신출세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¹⁴⁾

자신의 성취를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배우자에 대한 헌신이 필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 목표가 그러하기 때문에 결연 후 남성의 입신 출세나 공명이 필수적이지도 않다. <숫 굽는 사람의 행운>은 이 유형을 대표하는 이야기이다.

- ① 서울 장안에 한 부자 여인이 있었다.
- ② 이를 잡아 죽이는 소금장수와 이를 잡아버리는 숫구이가 있었다.
- ③ 여인은 소금장수와 혼인했으나 결별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 ④ 여행을 하다가 숫구이 총각 집에 유숙했다.
- ⑤ 숫구이 총각과 혼인했다.
- ⑥ 여인이 숫터의 이마돌이 금임을 발견하고 금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
- ⑦ 친정엘 오가며 잘 살았다.¹⁵⁾

이 이야기에서 여인은 부자로 설정되어 있고, 그 여인을 중심으로 두 남자가

13) 양혜란, 「기봉류소설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72-73면.

14) 정병현, 「배우자선택이야기[擇夫譚]의 유형적 성격」, 『아세아 여성연구』 35(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1996), 12면.

15) 강영순, 「조선 후기 여성 지인담 연구」(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195면.

대립되어 있다. 유사한 이야기에서 여인은 부자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복을 타고나거나 노력에 의하여 경제력을 획득한다. 여성의 경제력 확보가 자립과 동등에 유용하다는 인식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경제력을 지닌 여인이 두 남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우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인은 먼저 소금장수를 선택하였고, 그 실패를 인정한 다음 숲구이 총각을 선택하였다. 이야기에는 그 구체적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소금장수는 '이를 죽이고', 숲구이는 '이를 잡아버리는데' 이 사소한 차이에서 우리는 폭력성과 포용성이라는 대립항을 끌어낼 수 있다. 모든 대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폭력성은 일면 남성성 또는 아성과 같은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소금장수와 숲구이 총각은 그 직업의 성격상 방랑성과 정착성으로 구별된다는 것도 여성의 선택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⁶⁾

위의 이야기가 여성의 자아 성취를 위하여 남성을 선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온달설화의 여성은 스스로 남성을 선택하되 남성의 성취를 보조하는 위치에 머무른다. 온달설화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① 고구려 평강왕 때 바보 온달이라는 거지가 있었다.
- ② 평강왕은 을보인 딸을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놀렸다.
- ③ 성장한 공주는 왕의 명을 거역하고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하였다.
- ④ 화가 난 왕은 공주를 궁궐에서 쫓아낸다.
- ⑤ 공주는 온달을 설득하여 결혼한다.
- ⑥ 공주는 온달을 뛰어난 인물로 변화시킨다.
- ⑦ 온달은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왕의 신임을 얻는다.
- ⑧ 온달은 신라와 싸우다 전사한다.
- ⑨ 공주는 죽은 온달의 장례를 치른다.¹⁷⁾

공주는 출생과 함께 여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에 도달한 인물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남성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공주는 아

16) 여성의 남성 선택에 있어 남성적인 성격과 용모가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남성성이 일반적으로 지도력과 군림성, 그리고 방랑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17) 『삼국사기』 권·45 열전 5 온달

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바보인 온달을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한다.¹⁸⁾ 그리고 바보였던 온달을 훌륭한 장수로 변모시킨다. 온달은 공주에 의하여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공주에게 바보를 배우자로 선택하게 한 설화 향유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문면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공주의 온달 선택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공주는 온달에 대한 지인지감을 지니고 있어, 이 점에서 왕인 아버지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왕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가지는 권위가 파괴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미래의 담당자인 젊은이에 의하여 기성 세대의 권위가 파괴되는 민담의 바탕 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온달 선택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온달이 공주의 뜻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에 있다. 공주를 만나면서 온달은 공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온달이 다른 사람의 말, 특히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설화 향유자들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만을 견지하는 것을 바보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연함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공주는 다른 남성과 달리 온달이 이러한 유연한 내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주라는 신분과 온달이 가지고 있는 유연한 사고는 공주와 온달의 관계를 대등한 것으로 유지하게 하였다. 공주는 이러한 대등한 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온달을 선택하였던 것이다.¹⁹⁾

18) 여기에서 '바보'란 사사로운 집안의 일에 얽매어 공적 영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병현, 「배우자선택이야기[擇夫譚]의 유형적 성격」, 『아세아 여성연구』 35(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1996), 19-20면 참조.

19) 온달을 통한 공주의 능력 발양은 여성성이 거세되거나 그 활약이 봉쇄되었던 현실에 충격을 준다. 이는 남성만으로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 그리고 그러한 간극은 바로 여성성의 분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공주와 온달의 관계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박씨전>과 같은 이인적 여성을 형상화한 작품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지는 남성은 여성을 인정하고 여성과 더불어 삶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숫구이 총각이나 온달과 같이 여성에게 선택되는 남성은 여성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들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구도의 세계 속에 안주하던 과거의 모습을 그들은 쉽게 벗어 버린다.

이성간의 결합은 여성에게 있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入社儀禮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남성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통을 수반하는 입사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세계의 건설은 여성과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택부담 향유자들의 인식인 것이다.²⁰⁾

또 하나 이러한 설화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은 남녀의 만남이 집단적 성격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두 남녀는 결혼을 한 집안과 집안의 결연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대단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연에 접근하고 있어, 결혼의 역사성이나 종족 번식적 기능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자녀 양육이라는 당면의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결연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가계 계승이나 자녀 양육을 통한 훼손된 개인적 성취를 보상하기 위하여 결연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까지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남성이 유연성을 보일 수 없게 하는 현실제도가 완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배우자 선택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인식은 설화 향유자들이 꿈꾸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선택된 배우자와 함께 건설한 사회와 현실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 갈등의 문제이다. 현실에서 그렇게 위세를 떨쳤던 음험한 지배와 굴종의 모습이 그들의 사회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그렇다면 설화 향유자들이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는 바로 성 갈등 없는 사회의 건설에 있었다는 것을

20) 여성의 신분이 공주이거나, 부유한 여인, 그리고 이인적 품모를 지닌 여인과 같이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의 여성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도 남성의 유연성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만났을 때, 남성의 횡포에 의해 비극적 결과로 치닫는 모습은 변강쇠가에서 잘 드러난다.

확인할 수 있다. 성 갈등은 인간을 차별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성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투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설화에서는 남성만이 주도하던 사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감추어졌거나 또는 쓰여지지 않아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는 여성성에 대한 開眼의 促求라고 할 수 있다.²¹⁾

3. 男裝의 小說史的 位相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여성의 공적 생활 참여를 위하여 남장이라는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공적 활동을 차단하고 있다. 여성은 공인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科擧에 응시할 수도 없었다. 공적 생활에 관한 한 여성은 신분과 관계없이 원천적인 봉쇄를 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설이 여성의 공적 생활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낱 공상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방법은 없겠는가? 이러한 탐색의 결과가 남장으로 드러났던 것이다.²²⁾

남성으로의 僞裝은 기본적으로 금기시 되었던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한다. 여성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여성적 모습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윤패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적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 것이다.²³⁾ 이러한 욕구의 분출은 부모

21) 이인설화의 서사 방식이 여성성의 표출과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여성성과 이인의 능력은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은 이러한 지향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문학이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의 중요한 한 측면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이것이 전혀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戰爭과 士禍의 渦中에서 여성의 남장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변신에 관한 기본적 사유는 신화시대부터 있었던 원초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설화적 잔존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다. 변신의 서사문학적 전개와 양상은 김미란, 『고대 소설과 변신』(정음문화사, 1984)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23) 황미영, 「홍계월전연구」(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23-24면.

에게서 출발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결단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부인이 사랑을 청하야 아학을 뵈인더 도화궤고 향취 진동하니 진실로 월궁항아러라 깃부미 청양 업스나 남즌 아니물 이에 한탄하더라 계월을 남복을 넘혀 초당에 두고 글을 가랏치니 일남첩괴라 사랑이 초탄왈 네가 만일 남즌 되얏던들 우리 문호를 빗닐겨슬 이달도다 하더라(띄어쓰기는 인용자가 함)²⁴⁾

석일에 영영호걸이 난시를 등하야 창업지슈를 만나 공업이 우쥬에 빗나고 명슈 죽빱히고 화형 인가호진 호나 들이 아니라 우리 비록 여지나 쓰흔 하등이 아니라 십년을 괴악하던 일정 소원을 일우리니 여쭙 즉 평심 유호를 씻고 부모게 영효를 빌지라 오날날 세시 무죄이 죽으면 무어시 유익하며 부모의 유호를 엇지코즌 호나노 저저는 다른 호의를 마르시고 디스를 결든하라 호니 말슴이 쾌활도도하야 호치든순 스이로 산혈슈를 호르는 듯 상하갓튼 너른 소견이 가히 디스를 일울지라 즈취 답소왈 현재의 말이 쾌달하거니와 스세 부득이 되었스니 가기는 호려니와 하직을 엇지 고하리요 가만이 나아가면 누명을 면치 못하리로다 벽취왈 효조는 원근 출입에 방소를 고히느니 허물며 여즈의 몸이라 거취를 명빅히 할지라 호고 숨취 일시에 일봉셔를 닦가 동산 화원정에 걸고 숨인이 남복을 기착호고 황금 빅냥과 최든 빅여 꿩을 가지고 스경씨에 월장하야 다라느니라(띄어쓰기는 인용자가 함)²⁵⁾

위의 인용문은 부모가 女兒 됄을 恨하여 남장으로 키운 예이고, 뒤의 글은 여성 스스로가 공적 활동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남장한 예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영웅소설의 남장이 남녀의 차별이라는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식을 혼자장애나 의식의 한계와 연결짓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²⁶⁾ 이러한 점에

24) 홍계월전, 『활자본 고소설전집』 16(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481면.

25) 음양삼태성,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5(아세아문화사, 1976), 555-556면.

26) 여성영웅이 未完의 結婚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 부류의 소설을 혼자장에 이야기로 파악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영웅소설에서 의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는 남장의 설정과 남장임이 드러난 뒤 곧바로 여성으로 회귀하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에서 이 이외의 어떤 다른 소설적 방법도 강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인경,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중앙문화사, 1995), 1289-1290면.

서 남장이라는 소설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여성영웅소설의 목표가 여성성의 발현이라는 점을 태부담의 전통 속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발현 양상은 이인설화의 이인성 표출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이인성 표출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남장이었다. 현실의 범인과 같거나 더 열등한 존재로까지 보이는 이인처럼 남장을 통하여 여성은 남성으로 존재하되 남성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남장을 하는 이유는 현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은 대리인을 시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의 불편함을 충분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시켜 현실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박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씨전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외모가 추악한 한 여인이 남편과 화합하지 못하는 시련의 기간동안 능력을 드러내고 脫甲 후에는 남편과 화합함으로써 가정적 갈등은 해소되나, 갈등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능력은 극대화되어 발휘되고 마침내는 임금과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²⁷⁾ 우리는 앞에서 여성성의 표출 양상을 이인의 현실 간여와 관련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박씨전이다.

박씨전은 박씨부인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박씨부인은 이 세상에 내보내는 박처사가 이인적 풍모를 지닌다는 점에서 박씨 또한 이인의 영역에 포함된다. 박처사가 박씨부인을 내보내고, 또 박씨부인이 현실에 간여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국가의 위난 때문이다. 일상적 인물들은 그 위난을 예기하지 못하는데, 이인인 박처사와 박씨부인은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시백과의 결연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처사 자신이 직접 현실에 간여하지 않고, 딸인 박씨부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 작품의 중요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현실에의 간여가 단순히 국가의 위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직접 간여해도 되고, 또 나아가 대리인을 선정함에 있어 여성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사회 제도나 관습과

27) 정병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변이양상」, 12면.

의 충돌을 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극복만이 목표라면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정 등은 대단히 낭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²⁸⁾

그러니 박씨부인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그가 영웅적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는 여성이면서 영웅이지, 영웅인데 여성이기도 한 것이 아니다. 여성인 박씨가 공적 영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초현실적 영역에 거주하던 박처사는 현실로 내려오고, 그리고 박씨와 이시백의 결연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박씨부인의 여성성 표출은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內堂에 감춘 채 대리인인 이시백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아버지인 박처사의 방식을 반복한 것이다. 박처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딸을 내세운 것은 이인의 현실 참여가 갖는 위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인은 초월적 성격의 직접적인 구현자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나 시행 착오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현실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자신이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현실적 존재의 평가에 따라 초월적 존재의 인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초월성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한다. 초월적 가치의 구현을 위하여 한계를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 대리인을 선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씨부인이 이인적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함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박처사가 자신을 감추고 딸을 내세운 것처럼 박씨부인도 자신을 감추고 남편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그의 이인적 성격과 함께 여성이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인이 현실에 직접 나설 수 없는 것처럼 여성도 직접 공적 영역에 나설 수 없는 것이 조선의 현실이었다. 초기의 여성영웅소설인 박씨전에서 박씨부인이 내당에 자신을 감추고 남편을 조종한 것은 이인이 대리인을 내세워 현실에 참여한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구성인 것이다. 이때 남성인 이시백은 여성인 박씨부인의 분신이라고

28) 사적 영역에 종사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과업의 수행 이전에 남녀의 성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능력 있는 여성보다는 남성영웅을 선택하고 그를 통하여 위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주제의 구현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박씨부인은 여성의 옷을 입고 내당에 앉아 있지만, 이시백이라는 남성의 옷을 입고 공적 활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는 박씨부인 또한 현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남장을 했다는 여성영웅소설의 기본 구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²⁹⁾

그러나 남성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남장의 변형된 모습이라 하여도, 대리인을 내세운다는 것은 여성이 공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조선적 제도의 승인을 전제한 것이다. 남장을 통한 여성의 참여는 박씨부인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인식 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겉으로는 남장을 함으로써 조선적 현실에 위배되지 않는 결구를 취하되 여성이 직접 현실에 뛰어들어 박씨부인의 경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다.³⁰⁾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은 이렇게 남장을 통한 참여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남성으로의 위장이 드러나고 남성과 결연한 이후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 흥계월전을 위시한 일군의 작품은 위장이 밝혀지고 결연한 이후에도 영웅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흥계월은 선녀의 직강에 의하여 탄생한 인물이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 수반된다. 그리고 부모는 태어난 아이가 성 차별에 의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어려서부터 남복을 입혀 양육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에게 순종해야 하는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으로의 양육을 거부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性差를 신분으로까지 확대하였던 세계의 모순이 여성을 남성으로 위장하게 하는 비정상상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성의 감춤과 드러남으로 이루어진 과정은 단순히 흥미와 기이함으로 설명되지 않고, 사회 제도의 개혁이라는 메시지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³¹⁾

29) 성현경의 「여결소설과 설인귀전」(『국어국문학』 62, 국어국문학회, 1973)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박씨진은 여성영웅소설 최초의 작품으로 설정하고 있다. 박상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1), 6면.

30) 이것이 발전되거나 진전된 단계의 모습이라는 인식은 여성성의 분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허구화는 작가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남장한 여성의 현실 참여가 박씨부인과 같은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홍계월은 남편인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홍계월이 남성으로 위장하였을 때, 홍계월과 보국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홍계월이 대장군이 되고, 보국이 부장군이 되는 것도 이의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홍계월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보국은 과거에 지냈던 태도를 철회하고 홍계월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세를 갖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홍계월은 가정으로의 복귀를 거부하면서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홍계월전은 남성으로의 위장이 밝혀진 뒤 여성이 어떻게 성 차별 제도와 대결하고 있는가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래된 남녀의 갈등은 결국 천자의 승인, 남편의 애첩인 영춘의 살육, 죽음에 이른 남편의 구원을 통하여 홍계월의 철저한 승리로 귀결된다. 결국 갈등의 해소는 홍계월의 능력과 남성의 권위주의 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기존의 남성적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작가는 여성영웅의 용맹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어떠한 능력으로도 홍계월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남성이 인정하고서야 갈등은 해소되었던 것이다.³²⁾

홍계월전은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굴종을 강요당하던 조선조 사회의 성차별에 대하여 직접 반기를 들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과, 남성의 철저한 패배 위에서만 남녀의 평등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식까지도 전달하고 있다.³³⁾ 홍계월과 보국의 갈등은 기존의 남성적 권위주의를 고수하는 남성과,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여성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남편은 남편대로의 위상을 고수하고, 아내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아내는 그러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능력에 따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초월적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 현실의 존재이다. 그런데도 여성은 현실의 참여를 위하여 이인의 참여방식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여성이 현실의 존재이면서도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31) 박경원, 「홍계월전연구」(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1), 43면.

32) 이인경, 앞의 논문, 242면.

33) 박상란, 앞의 논문, 49면.

조선적 현실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조선적 제도가 철폐되고 여성의 현실 참여가 용인된 시대의 소설에서도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모습으로 부각되는 것 같지 않다.

연실이는 여류문학가가 무엇인지 문학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듯보기였다. 단 두 권의 소설을 읽어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즈음 자기는 조선 여자계의 선각자라는 자부심을 품기 시작한 연실이는 장차 여류문학자 노릇을 해서 우매한 조선 여성계를 깨쳐 주어 볼까 하는 희망을 마음 한 편 구석에 일으켰다.

단지 선각자라 하여도 무슨 일을 하여 어떻게 조선 여성계를 각성시킬는지 전혀 감각하던 연실이는 여기서 비로소 자신의 진로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장차 배우고 닦고 하여서 도가와(연실의 일본인 선배인 기숙사 방장으로 연실에게 문학의 꿈을 일깨워 주었음 - 인용자)만큼 문학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써 선각자 노릇을 하리라 막연하나마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³⁴⁾

선각자적 여성인 연실은 문학에 눈을 뜨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을 변화시키려는 의욕을 가진다. 그러나 그가 진행한 歷程은 결국 남성과의 애정 행각뿐이었다. 여성영웅소설이 결국 남성과의 결합을 통하여 공적 사회에 나갔던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킨 것처럼, 신학교와 동경 유학을 통하여 공적 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던 연실은 또 그렇게 맨처음 관계를 맺었던 남자와의 결합을 통하여 가정으로 복귀한다.

또 그 이튿날 연실이는 또 갔다. 그날 이런 말이 있었다. “과부 혼자비 한쌍이로구먼 ---.” “그렇구료!” “아주 한쌍 되면 어떨까?” “껏두 무방하지요.” 이리하여 여기서는 한쌍의 원앙이가 생겨났다.³⁵⁾

선각자로서의 꿈을 불태우던 김연실이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유린했던 남자와 결합하는 비극적 상황은 인간의 삶이 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김동인식의 사고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왕의 연구에서는 김동인의 자연주의적 태도나 남성주의적 사고의 결과라고 하였지만, 이는 1940

34) 한국문학연구소, 『김동인』(도서출판 연희, 1980), 246면.

35) 위의 책, 294면.

년대의 김동인 문학을 대표하는 김연실전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없다.³⁶⁾ 그는 결코 김연실의 전략 과정을 ‘잘 봤다’거나, ‘그러면 그렇지’ 하며 고소해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김연실전을 보는 것은 지금도 역시 김연실의 시대 인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약자의 역경을 사실대로 그리면서, 작가는 그러한 사회 인식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야말로 김동인의 진정한 문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약자인 여성의 논리에 서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여성영웅의 힘겨운 현실 참여를 모방했던 것이다.³⁷⁾ 따라서 김동인의 소설적 형상화는 왜 여성영웅들이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웅변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여성의 현실 참여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김연실전의 서문에서 잘 드러나 있다.

1920년대의 조선의 신여성상을 대표하는 여성계의 선구자요 선각자인 여류 문학자 김연실. 그가 이 세상에 나서 열 아문 살짜부터 서른댓 살까지 약 4반세기의 세월을 걸어온 자취는 그 기간 동안의 조선 신여성사이다. 구사회에서 신사회로 한 끝에서 다른 한 끝으로 - 지도자도 없이 정견도 없이 목표도 없이 다만 새로운 것으로의 돌진이었다. 거기 선구자의 고독과 거기 따르는 슬픔이 있었다. 누구를 배우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하나. 그런지라 그들은 거저 눈감고 돌진하였다. 자기네들의 생각에 새롭다 인정되는 일에는 제 삼자의 비판이며 욕설을 꺼리지 않고 돌진하였다. - 이리하여 신생 조선의 여성의 제 1기생은

3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80), 268면. “신여성의 가면을 폭로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연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난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도 도덕적으로 문란한 가족 환경과 긴밀히 연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홍로, 『김동인론』, 『현대한국작가연구』(민음사, 1979), 70면. “김연실전은 ……외래사조에 무비판한 당시 신여성들의 새것콤플렉스를 야유한 것이다.”

37) 이러한 태도는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연실이나 B사감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표면적인 이해이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비극적 정조야말로 작가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문학은 결코 공인된 약자 억누르기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김인환은 이 작품이 동정과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화해의 세계임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견해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김인환, 『B사감과 러브레터의 구조해명』, 『현진건연구』(새문사, 1981), 102-115면.

조선 여성의 주춧돌[礎石]로 시험대로 귀중한 희생이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주춧돌이 오늘날의 조선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희생이 되었는가. 이 주춧돌의 일부 분은 아직 살아 있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는 쓴웃음을 웃고 있을 것이다.³⁸⁾

4. 小說教育的 資質

여성영웅소설의 현실은 분명히 소설 창작이 이루어진 당대적 모습을 구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대적 사회 실상이나 인식을 이 소설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구성이나 결구에서 대단한 실망을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이 남장하고 전장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허황한 꿈의 세계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웅소설의 구성 방식을 이어받아 흥미나 오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설 속의 시간과 공간은 실제 생활의 그것이지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점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연주의 작가들의 바로 <인생의 단편>이란 분명히 사실적인 소설조차도 어떤 예술적인 관습에 따라 형상화되었다.”³⁹⁾ 결론부터 말한다면 여성영웅소설같은 현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향유자의 마음속에 존재하였다.

현실의 것만을 있다 하고 마음속의 것을 없다 한다면, 문학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실제의 사실보다도 심정적 진실이 오히려 더 우리의 사회를 끌어가는 현상을 자주 본다. 아무리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 재단된 결과로 대상을 바라보는 문화, 그것의 엄청난 힘을

38) 위의 책, 383면에서 재인용. 작가의 자세에 대한 다음의 글은 독자, 또는 연구자에게도 같이 요구된다. “작가는 할머니처럼 그저 따뜻하기만 한 애정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런 애정의 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작가 되지 않는 것이 본인과 문학을 위해서 다행한 일일 것이다. 진정으로 작가가 되려는 사람은 할머니의 눈을 지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눈은 마음의 눈이다. 김대행, 『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사상사, 1992), 148면.

39) 르네 쉐레, 「문학의 본질」, 『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과학사, 1980), 10면에서 재인용.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은 존재하고 있다.

여성영웅들이 수행하는 일은 여성의 현실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그러한 영웅적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여성이라는 현실을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표현이 남장이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이는 여성이 그 능력과 기상을 완비하고서도 여성인 것을 감추어야만 그 영웅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게 한없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인다.

또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도전도 한시적인 것으로서만 작용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남성의 우위를 인정하고, 따라서 그 성적인 갈등도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드러난다. 여성의 신분으로 사회에 진출했지만, 그 신분의 위장이 확인되면서 대체로 다시 가정이라는 전통적 영역으로 복귀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의식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거나 강화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은 소설이 갖는 기본적 속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의 개선을 직설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작가가 현실에 대하여 가지는 의식을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소설 장르 밖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개혁을 의도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점은 개념이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태의 창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설이 문제삼는 것은 결과나 해결이 아니라 그 과정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이 여성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면서 역설적으로 여성의 능력에 대한 비하를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러한 소설이 지니는 소설적 意匠을看過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만을 볼 때, 그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현 사회의 완강한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현 사회의 제도가 지닌 문

40) 김대행, 「서사와 소설의 거리」,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중앙문화사, 1995), 49-56면.

제점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여성의 자각이 없었다면 자신이 제도의 희생자라는 의식의 開眼도 나타날 수 없다. 여성인 현실에 대한 심각한 고뇌와 그 해결이 바로 여성영웅소설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이 이렇게 약자로서의 여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들은 소설 교육의 기본적 요소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소설문학이 다루는 대상은 현실의 비극적 원인이며, 그 해결 방안의 성찰에 있다. 그리고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며, 결코 현실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는다.⁴¹⁾

여성영웅소설은 소설이 지향해야 할 허구성의 본질, 남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소설사적 위상, 그리고 실제 세계와 문학 세계의 관계에 대한 새삼스러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학이 추구하는 피안지향성⁴²⁾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일깨우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뇌와 대화의 과정이 바로 소설 교육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이다.

41) 유종호,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과지성사, 1980), 66면.

42) 김대행, 『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사상사, 1992), 138면.

Abstract

Narrative Method in Korean Hero novel and the Features of Novel Education

Chung Pyung-Heon

This thesis was written in order to find the ground of Female Hero novel from the female leaded stories concerning the choice of a spouse[Taekbudam] and to search for its direction. Female Hero novel is the one in which a female acts like a hero in the disguise of a man. The woman gets free of her home which has been her scope of activities and then takes great victory in a war. After her heroic activities, concealment revealed and she gets back home marrying a man who was once placed under her orders. In this reason Female Hero novel was recognized as a novel that met the interest of female readers. But this type of novel puts emphasis on inevitable situation that she should be a hero rather than on her heroic activities. In this reason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exposure of Women's nature.

In the point that the truth of Women's nature is hid behind male, it is similar to the 'Iin'(Special character) who has an extraordinary ability, concealed in the world. Iin is not distinguished with ordinary person however internally connected with the transcendent world. The people, who are unsatisfied with actual life since their abilities are not recognized, expects the appearance of Iin. In this regard the motives of the appearance of Female Hero and Iin are similarly based on.

The basis of the exposure of Women's nature in Female Hero novel could be found in stories of woman's leading activity in the choice of her husband concerning their combination. The selected man in this stories is the

character who admits the woman's identity and is conscious to live together with.

Since the Women's nature was certainly disregarded in continuation of group or general life, this novel excludes collective thoughts. It stresses on the lives of the couple and does not reveal their spot of actual life in which they bring up their own children. That is the reason why it does not include women's latent faculties.

Female Hero novel is suitable for studying the fiction of novel in regard that women are described as heroes who are the weak in actual life. And we realize that the direction toward the other world, pursued in literature, becomes the motive power of our lives.